

# ‘오픈 마인드’ 오픈 बैं킹

하나의 앱으로 타행 출금·이체...카드사도 동참  
광주은행 4월까지 15만 가입...신규가입 이벤트

하나의 앱에서 다른 은행 계좌 조회와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오픈뱅크 서비스가 이달 말부터 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된다.

카드사들은 오픈뱅크에 이어 간편결제 서비스인 ‘오픈페이’ 구축을 넓히면서 경쟁사 간 벽을 허무는 유인책도 단행하고 있다.

16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오픈뱅크 누적 가입자 수는 15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12월 오픈뱅크 서비스를 시작한 광주은행은 50일 만에 2만명, 6개월 만에 7만 명을 넘기며 가입자 수를 늘려왔다.

오픈뱅크는 고객이 여러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핀테크 앱만으로 모든 본인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픈뱅크는 여러 계좌를 하나의 앱으로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함 덕분에 세대별로 골고루 가입자 수가 퍼져있다. 광주은행 오픈뱅크 가입자 비중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비중이 27.4%로 가장 높았다. 30대가 22%로 뒤를 이었고, 50대(21.6%), 10대~20대(20%), 60대 이상(9%)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광주은행 오픈뱅크를 통한 타행 계좌조회와 이체 건수는 각각 2배 넘게 늘어났다.

올해 3월 말 기준 오픈뱅크 계좌조회는 35만8069건으로, 1년 전(17만7615건)보다 2배(101.6% ↑) 증가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가입자 1인당 오픈뱅크 계좌조회를 2회 가장 이용한 셈이다.

오픈뱅크로 계좌를 조회한 건수는 17만4866건(지난해 6월)→19만788건(9월)→20만5814건(12월)→35만8069건(올 3월) 등으로 증가 추세다.

타행 이체 건수는 3만713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1만6521건)보다 2.2배(124.8%) 늘어났다.

이체 이용 건수도 1만7832건(지난해 6월)→2만3685건(9월)→2만672건(12월)→3만7134건(올 3월)으로 늘어나고 있다.

은행권은 오픈뱅크 고객을 모셔오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펼치고 있다.

광주은행은 오픈뱅크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총 4000명에게 커피 상품권을 주는 경품 행사 ‘오픈뱅크 함께해요’를 오는 7월 4일까지 벌인다.

추첨 대상은 광주은행 오픈뱅크 서비스에 신규 가입한 뒤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서 광주은행 본인 계좌로 이체한 고객이다.

행사 기간 동안 광주은행 적극 가입 후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규 적극 계좌로 오픈뱅크 자동출금서비스를 신청해도 추첨 대상에 포함된다.

광주은행은 스타벅스 모바일권을 1000명씩 2주마다 4회에 걸쳐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은행은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 신청을 완료한 뒤 올해 하반기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를 모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금융 생활에 편리함을 더하고 데이터 기반 맞춤형 개인종합자산관리(PFM) 서비스를 강화한다.

광주은행은 제1금융권 최초로 지난 2019년 9월 토스 모바일 앱을 통한 ‘모바일 대출 금리 비교 서비스’를 실시하고, 거래내역 알림서비스, ‘내통장 개설 이벤트’ 등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조정민 광주은행 디지털사업부장은 “오픈뱅크서비스 제공 참가기관이 점차 확대되는 등 금융과 비금융, 빅테크 기업의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고객 요구를 반영한 광주은행만의 특화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저축은행 고객도 오픈뱅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수신 계좌를 제공하는 전체 금융권에서 오픈뱅크 이용이 가능해졌다.

오픈뱅크는 지난 2019년 12월 은행과 핀테크 기업을 시작으로 상호금융, 증권사 등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가 확대됐다.

이달 현재 은행(18개), 핀테크 기업(62개),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5개 기관), 우정사업본부, 증권사(14개), 저축은행(73개) 등 모두 173곳이 오픈뱅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달 말부터는 카드사별로 오픈뱅크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누적 가입자 수는 7657만명(중복 포함), 계좌 수는 1만3853만개다.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크를 통한 금융 혁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오픈뱅크 참여 업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오이로 갈증 썩! 16일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 직원이 5월 제철 채소인 다다기오이(2980원·5개)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재배된 이 상품은 생육환경이 자동 관리되는 ‘스마트 팜’ 농법이 적용됐다. <롯데쇼핑 제공>

## 한전 1분기 영업익 5716억...32.7% 증가

### 국제유가 하락 등 영향

한국전력이 올 1분기도 지난해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2.7% 증가했다.

한전은 지난 14일 올해 1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15조753억원, 영업이익 5716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분기보다 매출은 0.1%(-178억원)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2.7%(1410억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이 개선된 것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낮아진 국제유가 하락 영향이 시차를 두고 연료비에 반영된 덕분이다.

한전은 올해부터 원가 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면서 전기 판매 수익은 줄었지만, 연료비를 더 아끼면서 실적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분기 전력판매량은 1년 전보다 2.5% 증가했으나 전기판매수익은 267억원 감소했다. 연료 가격 하락을 반영해 전기요금도 깎아줬기 때문이다.

수익은 줄었지만, 나가는 비용은 더 감소했다.

한전 사회사들의 연료비는 유가와 석탄가 하락, 상

한 제약에 따른 화력발전의 석탄 이용률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921억원 감소했다.

한전이 민간 발전사로부터 구입한 전력량은 6.9% 늘어나 전력구입비는 1794억원 증가했지만, 사회사들의 연료비 감소폭이 더 커져서 1분기 연료비·전력구입비는 전년보다 127억원 감소했다.

기타 영업비용이 1461억원 줄어든 것도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한전은 “송배전선로 신증설 등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늘었음에도 배출권 무상 할당량 추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감소, 수선유지비 감소 등으로 기타 영업비용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한전 및 전력그룹사의 판매량 1kWh당 전력공급비용(단위당 비용) 증가율을 2024년까지 연간 3%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력공급비용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비용 집행 효율성 제고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저탄소·친환경 중심 해외사업 개발과 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투명성) 개선에 노력하는 ESG 경영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중기부, 청년 고용 소상공인 1%대 대출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연 1%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이거나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으로,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 중인 소상공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금리는 1년 차 1.73~2.13% 사이로, 대출 후 1년간 청년 고용을 유지할 경우 2년 차부터 0.4%포인트 인하된다.

중기부는 시중은행을 통해 총 5000억원 규모의 대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6	12	19	23	34	42	35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476,478,125	15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4,282,285	68
3	5개 숫자일치					1,176,665	3,137
4	4개 숫자일치					50,000	141,987
5	3개 숫자일치					5,000	2,219,439

## 광주문화신협 예금 한시모집!

#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 18개월 연 1.87%

세전 / 만기해지

# 12개월 연 1.80%

세전 / 만기해지

※한도 소진시 조기 마감됩니다.

## 1인당 1,000만원까지 완전비과세 (광주 북구 및 광산구 거주민 가입 가능)

##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 2.97%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화신협 첫거래시 행복적금 연 4.0%

(1인 월20만원 한도, 오픈뱅크 가입조건) 세전 / 만기해지

**주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탁금 및 적금은 신협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교세중합저축 가능합니다.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